

WMC 기도학교 시리즈 2

성경에 나타난 죄

Sins in the Bible, Commentary



김정복 목사

“성경에 나타난 죄”를 발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딤펴1:15)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성경에 나타난 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기도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부족한 주의 종, 목사 김정복

성경에 나타난 죄

Sins in the Bible, Commentary



I. 성경에 나타난 죄(罪, Sins) | 5

성경에 나타난 죄는 어떤 것인가?

1. 구약에 나타난 죄 | 6

- 1)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 6
-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 8
- 3)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 9
- 4)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예정과 섭리 | 10

2. 신약에 나타난 죄 | 13

- 1)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 14
- 2) 구원의 현재면에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 18
 - (1)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 19
 - (2) 회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 20
 - (3)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나? | 21
 - (4) 구원 받은 성도는 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나? | 22
- 3)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이다. | 23
- 4)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 28

II.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또는 잣대(Measure)는 무엇인가? | 39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또는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이다.

1. 다윗의 경우 | 39

2.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니느웨 성의 경우 | 41

3. 가롯 유대와 베드로의 경우 | 42

4.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경우 | 43

5. 사도 바울의 경우 | 43

I. 성경에 나타난 죄

성경에 나타난 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 1)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창1:1).
- 2)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God's Image)과 하나님의 모양(God's Likeness)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God's Breath of Life)를 불어 넣으셨다(창1:26-27, 2:7).
- 3)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하신 것이다(창1:31).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10:31) 살아야 한다.
- 4)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Fear God)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Obey)하여야 한다.
- 5)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이다.
- 6)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롬3:23),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롬6:23),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사(요19:30, 34),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요16:9).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Our Image)을 따라 우리의 모양(Our likeness)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6-27)

○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The breath of life)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living being)이 되니라(창2:7)

-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1:31)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19:30, 34)
- 죄에 대하여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16:9)

1. 구약(Old Testament)에 나타난 죄 :

구약에 나타난 죄(罪)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敬畏, Fear God)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Obey)하지 않는 것이 죄였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Law)과 법도(Rule)와 규례(Regulation)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 1) 하나님을 경외(Fear God)하지 않은 것(창22:12, 시36:1, 롬3:18, 23)이 죄이고
-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Obey)하지 않은 것(창2:16-17, 3:6)이 죄이며
- 3) 하나님의 율법(Law)과 법도(Rule)와 규례(Regulation)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출20:1-17)이 죄이다.

1) 하나님을 경외(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죄(罪)이다.

(1)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창3:6).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

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獨子) 이삭도 아끼지 않고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다(창 22:12).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마1:1),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 (2)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창 3:17)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창4:3),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창4:5)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창4:7)고 하셨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가인은 오히려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창4:7-8) 이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으며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시36:1-4, 롬3:10-18)

○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시36:1)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6-17)

○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3:6)

○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얽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4:3-7)

○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롬3:10-18)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順從)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창2:17, 3:6, 삼상15:22)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이다.

- (1) **원죄** :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다.(롬5:12)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고 인류의 조상이 되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고전15:22)
- (2) **자범죄** : 가인이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의해 스스로 범하는 죄이다.(삼상15:22)

○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

○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15:22)

○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15:22)

3)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출1-17, 신5:1-21)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사망이 왕노릇하였고(롬5:13, 14),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이 죄이다.

-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7) 간음하지 말라
- (8) 도둑질하지 말라
-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20:1-17, 신5:1-21)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Ten Commandments) 곧 율법을 행위로 지킨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즉 우리의 행위로 구원 받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롬3:10-18, 23)

구약에 나타난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이다.

온 인류는 이 모든 죄를 다 범했고(롬3:10-18, 23) 죄의 삶은 사망이므로(롬6:23) 온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죄문제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히4:15)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요19:30,

33-34)으로 온 인류의 죄문제를 해결(히9:22, 레17:11)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가 되셨다. (요3:16,14:6,고전15:22)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5)

○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22)

○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17:11)

4)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예정과 섭리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 예정과 섭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창3:6), 하나님께 범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창3:14)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3:15)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 사, 뱀(계12:9)의 머리를 상하게 하사 사탄을 온전히 멸하셨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으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19:30), 3일 만에, 부활하시고(고전15:55-58), 승천하사(행1:9)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엡1:4-6)

○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3:14-15)

○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9)

○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15:55-57)

○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 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4-6)

(2)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눅1:35)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실 자라(마1:18-21) 하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하셨다.

○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1:35)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18-21)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3)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야이시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창1:1), 곧 태초에 계신 말씀

(요1:1)이 성육신하셔서(요1:14)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죄는 없으시다.(히4:15, 요일3:5)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3:5)

(4)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공의로우시며 사랑(Agape)(요일4:8, 16)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사(요일4:9-10),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요19:30) 피 흘리게 하사(요19:34) 그의 피 값으로(히9:22, 레17:11)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롬6:23, 사53:4-6)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4:16)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 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4:9-10)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4-6)

(5)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16:15-17)고 하셨다. **예수님은 참으로 구세주,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16:15-17)

2. 신약(New Testament)에 나타난 죄

신약에 나타난 죄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요16:9, 8:24), 구원의 현재면에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롬7:15-8:4),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죄이고(갈5:16-21),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마22:35-40, 갈5:14)

- 1)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요16:7-9, 8:24)이 죄이다.
- 2) 구원의 현재 면에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롬7:15-8:4)이 죄이다.
- 3)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갈5:16-21)이 죄이다.
- 4)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마22:35-40, 갈5:14)이 죄이다.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5:16-21)
 ○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5-40)
 ○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갈5:14)

1)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罪)이다.

신약에 나타난 죄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요16:7-9, 8:24)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요16:8)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요14:6),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요8:31-32)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다.(눅4:18-19, 갈5:13)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16:7-9)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1-32)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죄악에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사탄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

형제들아 너희가 죄와 악과 사탄(satan)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5:13)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罪, sins)인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창22:12),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창2:17, 3:6),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출20:1-17)이 죄이고, 죄의 삯은 사망(롬6:23)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롬3:23),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롬3:10-18)하였다. 따라서 세상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의 삯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롬6:23)

공의(公義)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요일1:8,16)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히4:15),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사(요일4:9)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사(요 19:30, 33-34), 그의 피 값으로(히9:22, 레17:11)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길(요14:6)을 열어 놓으셨다.

자기의 죄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의로워 지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요16: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代贖)이란 어떤 것인가?

- (1) 인간은 모두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를 범하였고(롬3:10-18),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롬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롬3:23),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
- (2)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삯인 사망을 지불하셔야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다.
- (3)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사(요19:30, 34) 우리의 죄의 삯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게 하셨다.
- (4)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成肉身)하신 하나님이시며(요1:1, 14), 메시아이시다.
- (5)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사 화목제물이 되셨다.(요19:30, 34)
- (6) 율법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고 한다.(히9:22, 레17:11)
- (7)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히4:15)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므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고전15:55-56).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代贖)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어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요3:16-17)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

그러므로 이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의롭다고 칭(稱)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요1:12-13, 롬8:15-17, 갈4:6-7)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벧전1:15-16)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1:12-13)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5-17)

○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갈4:6-7)

○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1:15-16)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만족 시키셨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가 이룩한 의(義)인데, 그 의(義)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能動的 順從, Active Obedience)과 수동적 순종(受動的 順從, Passive Obedienc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仲保者)로서(딤후2:5, 히 9:15),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의 낮아지심 곧 능동적 순종인 비하(卑下, humiliation)와 그의 높아지심 곧 수동적 순종인 승귀(昇貴, exaltation)의 두 과정을 거치셨다.(빌2:5-11)

가) 예수님의 비하(卑下, Humiliation) :

성육신(成肉身), 수난(受難), 죽으심(死亡), 매장(埋葬)

나) 예수님의 승귀(昇貴, Exaltation) :

부활(復活), 승천(昇天), 재림(再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

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5-11)

2) 구원의 현재면에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성도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엡 1:4-5),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고(엡2:8-9),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름을 통해서(롬10:17), 중생하게 되고(요3:5, 딤후3:5), 성령님의 역사(롬8:26-27)하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골2:12-13, 말3:7). 그러나 성도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구원의 현재면에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롬7:15-8:4, 마7:21).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

○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

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7:15-8:4)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1)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 눅24:46-48)

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헐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시66:18)

나)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시102:1-2, 렘5:25, 사1:15, 59:1-3)

다) 성도는 아직 육신 안에 살고 있으므로,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대적하기 위함이다.(롬7:15-8:4)

○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66:18)

○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사1:15)

○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사59:1-3)

○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렘5:25)

○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시102:1-2)

(2) 회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Admission)하고, 자백(Confession)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 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 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눅15:17-18)
- 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요14:26)
- 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야 한다.
(은3:8)

○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눅15:17-18)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

○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은3:8)

성경에 나타난 회개의 예

가) 니느웨성의 회개

금식과 부르짖는 회개와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났다.

○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은3:7-10)

나) 유대인들의 회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행2:37-39)

(3)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나?

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일1:9)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히10:17-18, 사43:25, 고전13: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Agape)이시고, 우리의 죄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한글성경(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것 을 생각하지 아니하며”(고전13:5)로 되어 있는데, 영어성경(NIV)에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로 되어 있다. 즉 “죄악의 기록이 없다”로 되어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한 사람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10:17-18)

○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43:25)

○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고전13:5)

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요5:29, 암8:7)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용서 받지 못한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모든 죄악과 악행을 기억하신다.

○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9)

○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암8:7)

(4) 구원 받은 성도는 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 받은 성도는 의롭다고 칭함(稱義)을 받는다(롬3:24) 칭의(稱義)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한 “의(義)”가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방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삯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 값을 내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죄 값이 없어졌다는 뜻이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성도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나,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새로 범하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한다. 헬라어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dikaioo”인데, 이 말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란 뜻이다. 헬라어에서 “oo”로 끝나는 동사가 윤리, 도덕을 말하면 “...로 여김을 받는다”란 의미를 갖는다.

바울 사도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 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롬7:18-19)

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 하고 탄식하였으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도다(롬7:25)하며, 육신 안에 거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고 승리를 고백한다.(롬7:15-8:4)

구원의 현재 면에서 우리는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옛사람)을 죽이고(고전15:31) 육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 바울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롬 7:22-23)고 탄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현재 면에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일1:9), 용서하신 죄는 기억지 않으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될 때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된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고전15:31),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 2:20)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3)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이다.(갈5:16-21, 히6:1-10)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삼 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인격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동격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다른 인격이시고, 성자는 성령과 다른 인격이시며, 성령은 성부와 다른 인격이시다. 그러나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모두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 (1)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거룩 거룩 거룩하신 영(Holy Spirit)이시며, 태초에 말씀(Word, Logos)으로 계신(요1:1), 창조주 하나님입니다.(창1:1-31, 요4:24)
- (2)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요1:1, 14, 16:7)
- (3) 성령님은 삼위일체(The Trinity)되시는 하나님의 제 삼위로, 지성(知)과 감정(感情)과 의지(意志)를 갖고 계신 인격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거룩한 영(Holy Spirit)이신 하나님입니다.

가) 성령님의 지성 : (고전2:10-11)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2:10-11)

나) 성령님의 감정 : (롬8:26-28, 15:30, 엡4:30)

성령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는 분이시다.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6-28)

○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롬 15:30)

○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4:30)

다) 성령님의 의지 : (고전12:3, 12:8-11)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主)시라 할 수 없고, 모든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 이시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전12:8-11)

(4)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성령님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 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요16:13)
-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요16:14)
- 다) 성도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요16:8-9)
- 라)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롬8:26)
- 마)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롬 8:27)
- 바) 성령님의 중보기도로 성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롬8:28)

- 사) 하나님의 영감으로 정확무오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딤후3:16-17)
- 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전12:3)
- 자) 우리로 하여금 중생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요3:5, 딤후3:5)
- 차)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롬8:27)

○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16:13-14)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5)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는 어떤 것인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5:19-21, 롬8:5-8)고 말씀한다.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인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짓는 본성(the sinful nature, NIV)이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

령님을 거스르는 자이며, 육체의 소욕은 죄이다.(갈5:16-17)

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5:19-21)

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8:5-8)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으나, 죄는 결코 전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십자가의 좁은길 곧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한다.(롬 7:15-8:4, 갈5:16-21)

“술 취함”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5:18)**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쏘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꺾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잠23:29-35)

4)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罪)이다.
(마22:35-40, 눅10:25-29, 고전13:1-8, 갈5:14)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큼니까?(마22:36)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5-40, 눅10:25-37)고 하셨고, 바울 사도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갈5:14)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여야 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십계명(Ten Commandments)의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지키는 자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이미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지키는 자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이다.

- (1)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 (2)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룩한 영이신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 1)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창1:1-31)
- 2)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요4:24-25)
- 3) 하나님은 말씀이시다.(요1:1)
- 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요1:14)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겔3:1-3). 말씀이 성도의 참된 양식이다(신8:3).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하나?

1)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겔3:1-3)

(1)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신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2) 나의 입은 내가 벌려야 한다.

“내가 입을 벌리니”, 이는 내가 입을 벌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3)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다. 이는 내가 입을 벌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적의미를 깨우쳐 주시므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다.

(4)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말씀은 내가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워야 한다.

“내가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운다”는 말씀은, 내가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음미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내 배에 넣으며, 말씀이 내 창자로 들어가 온몸에 퍼져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는 뜻이다.(히 4:12)

(5)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으니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는 내가 꿀 같은 말씀을 쉬지 않고 먹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 2)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하심이라(신8:3).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살며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살 때에 회개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며, 말씀 안에서 살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되며, 말씀 안에서 살 때에 기도하게 되며, 말씀 안에서 살 때에 감사하게 되며,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이고, 아버지의 자녀인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죄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고,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다.(마25:40, 45)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40)

○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마25:45)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눅 10:29)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강도만난 자를 피해 간 제사장과 레위

인과 강도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눅10:33-35)을 예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10:36)고 물으신다.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대답하니(눅10:37),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 가) 율법사의 질문 :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눅10:29)
- 나) 예수님의 질문 :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10:36)
- 다) 율법사의 답변 :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눅10:37)
- 라) 예수님의 말씀 :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 “강도만난 자가 나의 이웃”이라고 하신다.

강도는 누구인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자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눅10:30)간 강도는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한다.(요10:10)

○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

누가 강도 만난 자이며, 무엇을 강도당했는가?

- 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은 의복을 빼앗기고 거의 죽도록 맞았다.(눅10:30)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물질(의복)과 육체(매맞음)를 강도당했다.
의복은 그의 신분을 나타낸다.
- 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자비와 선행과 사랑의 마음을 강도당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적인 것(사랑)과 정신적인 것(평안)을 모두 강도당했다.

강도는 무엇을 빼앗아 가는가?

- 가) 강도는 일반적으로 강도에게 없는 것을 빼앗아 간다.
- 나) 성도에게는 있고 강도 곧 사탄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 다) 그것은 성도의 믿음, 기도, 사랑, 기쁨, 평안, 감사, 인내, 온유, 선행,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함, 말씀, 성령 충만함 등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등 영적으로 귀중한 것들이다.
- 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적으로 귀중한 것들을 사탄에게 강도당했다.
- 마)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영적으로 귀중한 것들을 사탄에게 강도당한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 바)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당한 내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Intercession)하여야 한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령 충만한 성도이다(눅10:33-35). 우리는 강도당한 나의 이웃을 찾아가 사마리아인 같이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와 싸매줄 수 있는 도구와 강도당한 자를 태울 수 있는 짐승과 두 데나리온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사랑의 내용들이다. 우리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항상 강도당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랑의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Agape)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주 다투는 이유는, 서로 사랑(Agape)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도 자주 싸운다.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Agape)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Agape)”은 그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다만 본능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이성(異性)을 사랑하며, 감성(感性)이나 지성(知性)으로 불쌍한 사람이나 이웃을 사랑(?)한 적은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능적이고, 이성적(理性的)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Agape)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Agape)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음 12가지를 “하나님의 사랑”(Agape) 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Agape)”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요일4:8, 16). “God is Love.”, 여기서 “Love”는 헬라어로 “Agape”이다. 헬라어 성경에는 “God is Agape.”이다.
고전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Agape이다.

1.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2.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3.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4.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5.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6.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7.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다.
8.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9.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10.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11.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2.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고전13:4-7).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요3:16)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롬5:8)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다(롬8:26-27).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오래 참고, 끝까지 온유한 것이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한 분이시며, 성령님의 열매에도 온유함이 있다. 모세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유모(乳母)와 같이 “유순한 사람”이 되었으며, 스테반도 순교하기까지 오래 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 1) 하나님은 온유하시다.(삼하22:36)
- 2) 예수님은 온유하시다.(마11:28-29)
- 3) 성령님은 온유하시다.(갈5:22-23)
- 4)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민12:3)

- 5) 바울은 온유함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되었다.(살전2:7-8)
- 6) 스테반은 순교하기 까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행7:59-60)

-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삼하22:36)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8-30)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민12:3)
-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살전2:7-8)
-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7:59-60)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言語)을 끝까지 참고 온유해야 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끝까지 참고 온유해야 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끝까지 참고 온유해야 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끝까지 참고 온유해야 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끝까지 참고 온유해야 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시작이다.

-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고전10:31)
- So eat and drink and do everything else for the glory of God.(1Cor10:31)
-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롬14:7-8)

We don't live for ourselves alone. And we don't die all by ourselves. If we live, we live to honor the Lord, If we die, we die to honor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Rom14:7-8)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뜻한다. 죽은 사람은 자존심도 이기심도 감정도 생각도 욕망도 함께 죽은 것이다.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감정과 생각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죽은 사람은 오래참고 온유하다. 죽은 사람같이 오래참고 온유하여야 한다.

- 1)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욕심과 욕망은 이미 죽었다.
- 2)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이미 죽었다.
- 3)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모든 실망감과 절망감도 이미 죽었다.

성도(Saint)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오래참고 온유할 때에, 남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남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따라서 오래 참고 끝까지 온유한 것

이 사랑(아가페)의 시작이다. 이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선교도, 순교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성경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Agape)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Agape)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다(고전13:1-3).

- 1)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일4:8, 16), 성령의 열매의 본질은 사랑(Agape)이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며, 동시에 성령의 은사이다.(고전12:31, 갈5:22-23) 따라서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해야 한다.
- 2)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마22:37-40, 요13:34)
- 3)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갈5:14)
- 4)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해야 한다.(요일4:7-8)
- 5)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Feed my lambs), “내 양을 치라”(Tend my sheep)고 하셨다.(요21:15-17).
- 6)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신다. 따라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는 것이다.
- 7) 그러면 예수님 곧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4:20)고 하신다.

그러면 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껍질이 깎여져서 새사람이 되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이 도려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1989년 9월-12월까지 영국 런던 근교에 있는 WEC 선교부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일이 있다. 이곳은 선교 교육만 시키는 곳이 아니라 선교훈련도 함께 시킨다.

하루는 나의 이름이 감자 깎는 명단에 올라있다. 새벽예배가 끝난 후에 부엌 뒤에 있는 감자 깎는 방으로 갔다. 덴마크 선교사 한분이 먼저 와있다. 우리 앞에 감자 두 자루가 놓여있다. 오늘 아침에 약 150여 명의 WEC 식구들이 함께 아침식사로 먹어야 할 감자다. 이 많은 감자를 30분 이내에 깎아야 한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덴마크 선교사를 보고 웃었다. 선교사도 나를 보고 웃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며, 앞에 놓인 큰 통을 가리킨다. 이것이 감자 깎는 통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루에 담긴 감자를 먼저 물에 쏟아 씻은 후에, 그 통에 쏟아 붓는다. 거의 한 자루가 다 들어간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니 감자 깎는 통 내부에서 감자들이 함께 돌아가며 껍질이 깎이는 소리가 난다. 6-7분가량 지난 후에 파란 불이 켜진다. 밑에 있는 뚜껑을 여니 감자들이 아래로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자들이 모두 깎여있지 않는가? 다만 꼬부라진 부분과 웅이가 있는 곳은 깎여있지 않았다. 나와 선교사는 웅이가 있는 것과 꼬부라진 감자만 골라서 칼로 웅이를 도려내면 된다.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자루의 감자들이 통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30분 내에 두 자루의 감자를 모두 깨끗이 깎을 수 있었다. 감자 깎는 통 안에서 깨끗한 감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자들이 서로 돌고 돌면서, 다른 감자들에 의하여 내 껍질이 깎여져야 한다. 그리고 꼬부라진 부분과 웅이는 칼로 도려냄으로 깨끗한 감자가 되는 과정을 보고,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원리를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감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자가 통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돌때에 나의 껍질이 다른 감자에 의하여 깎여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

내 껍질이 꺾여질 때에 나에게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이 과정에서도 꺾여지지 않은 웅이와 꼬부라진 부분은 칼로 도려내는 더 큰 아픔이 내게 있어야 한다.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남이 먹기 좋은 깨끗한 감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내 껍질이 꺾여지는 아픔과 고통, 즉 내가 새사람이 되는, 내가 바뀌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웅이와 같고 꼬부라진 내 고집과 나의 자존심은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히4:12)으로 도려내져야 한다. 그 아픔을 끝까지 오래참고 온유하게 견뎌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내 이웃이 먹기 좋은, 내 이웃을 위한 깨끗하고 부드러운 감자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오래 참고 견뎌야 하고, 깨끗한 감자가 되기까지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을 견디는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통의 연단을 거쳐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흘리시기까지 오래 참고 온유하셨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끝까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II.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또는 잣대(Measure)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또는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죄는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롬3:23). 만일 죄악이 심판의 기준이나 심판의 잣대라면 구원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이다.(행2:37-38)

1. 다윗의 경우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

- 1) 다윗은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대상28:3)
- 2)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간접 살인한 사람이다.(삼하11:2-17)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많이 한 믿음의 사람이다.

다윗은 죄를 많이 범했으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삼하12:13),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함을 인하여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다윗은 여호와 앞에 많이 회개한 사람이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였다.(삼상17:45-47) 다윗은 믿음과 회개의 사람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행13:22)

다윗은 시편에서 많은 회개기도로 자기의 죄를 자백한 사람이다.

(시편 6, 32, 38, 51, 102, 130, 143)

- 1) 시6:1-10 :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 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

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짧이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2) **시32:1-5** :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3) **시38:1-10** :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4) **시51:1-10** :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

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
소서.

5) 시102:1-11 :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
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솥 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
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같이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
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
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
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회개와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며, 다윗의 계보(마
1:1)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윗의 죄악
이 아니고, 다윗의 믿음과 회개에 있었다.

2.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니느웨 성의 경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니느웨 성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
이었으나(창18:20, 19:4-5, 욥1:2)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회개할 죄를
알지 못하였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창19:24-25), 니느
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므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고 회개와
믿음에 있었다.

1) 소돔과 고모라 성의 범죄와 심판(창18:20-21, 19:1-29)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회개하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하나님 앞
에 회개할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들만 있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2) 니느웨 성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욥1:2, 3:1-10)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은 왕으로부터 집

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죄인들만 있었다. 따라서 니느웨성 사람들은 회개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 (1) 니느웨성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욘3:4-5)
- (2) 왕이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앉아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굵은 베를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선포했다. (욘3:6-8)
- (3)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니느웨성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고 회개와 믿음에 있었다.

3.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고, 사탄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갔고, 가롯유다는 회개 없이 목매어 죽었다.(요13:2, 27, 마27:3-5)

- 1)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요13:2)
- 2) 가롯 유다의 마음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요13:27)
- 3) 가롯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다만 뉘우친 후에 목매어 죽었다.(마27:3-5)
- 4)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으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마26:75)
 - (1)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마26:69-70)
 - (2)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마26:71-72)
 - (3)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다.(26:73-74)
 - (4) 이때에 닭이 우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니라(마26:75)

회개하지 않은 가롯 유다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고,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 가롯 유다는 죄악을 범한 후에 뉘우치기는 하였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으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회개하였다.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베드로의 죄가 아니고 회개와 믿음에 있었다.

4.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경우(요8:3-11, 레20:10, 롬3:10-18)

- 1)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의 죄와 율법이다.(레20:10)
- 2)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의 회개와 믿음이다.(요8:3-11)
- 3) 이 세상에는 남의 죄를 심판할 의인은 아무도 없다.(롬3:10-18, 23, 12:19)

사람들은 남의 죄악을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요8:11).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여인의 간음한 죄가 아니고, 여인의 회개와 믿음에 있었다.

5. 사도 바울의 경우(행9:1-20)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삼일 간 금식하며 회개한 후에, 새사람이 되었다(행9:3-9).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지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와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었다(행9:15-19). 하나님의 용서와 택함의 기준과 잣대는 바울의 회개와 믿음에 있었다.



WMC 국제기도학교
WMC School of Prayer Int'l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818) 765-7517(H) • (213) 500-0962(Cell)
www.wmcprayer.org • wmcprayer@gmail.com